

한국농어촌공사 고성 도원저수지서 비상대처훈련 실시

[김주현]

13일 관계기관 30여명 참가...신속 대응시스템 점검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속초고성양양지사가 13일 고성 도원저수지에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속초고성양양지사(지사장 황희동)는 13일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 위치한 도원저수지에서 집중호우, 태풍,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.

이번 비상대처훈련에는 강원지역본부 ER팀, 속초고성양양지사 재난대책반, 지자체, 소방서, 경찰서, 긴급복구동원업체,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가했으며,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에 의한 저수지 붕괴위험 상황을 가정해 신속 복구, 상황별 대응조치 능력 배양과 지역주민 대피요령 등을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.

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, 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동원업체의 중장비를 동원한 신속한 응급복구, 인명구조, 주민대피 등 재난상황에서의 상호협력을 통한 원활한 대처능력을 정비했다.

황희동 속초고성양양지사장은 "재난발생의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처를 위해 드론으로 피해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자연재난 및 각종 비상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 김주현 기자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속초고성양양지사가 13일 고성 도원저수지에서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.

김주현 기자 joohyeon@kado.net